

江戸時代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stume of Geometric Pattern in Edo Period

박경미 · 박옥련*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Park, Kyoung Mee · Park, Ok Ryun*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Abstract

Our study found that the types and forms of patterns of Japan, although they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and China, hold their own distinctive aesthetic awareness. They were made so, because the Japanese had not simply copied the patterns from other countries and also had changed them in various ways for ages. Especially, geometric patterns were widely used on some types of kimono costumes and belts in Edo period. One of the most widely used patterns was called Suk Chup Mun, and Tatewaku pattern was another. The San Gil Mun and Chil Bo Mun pattern was least used.

In the patterns combination, that of animal and plant patterns was general. A single geometric pattern was not used, but if any, it was in Sima patterns and latticed patterns.

On the other hand, the combination of geometric and plant patterns was more frequently used as composite patterns than any other pattern, such as geometric pattern with home tools, or one with animal patterns or nature patterns. The geometric patterns that had appeared in Edo period were combined in paintings along with animal and home tools patterns, so it could become a representative pattern of the age.

Key Words : Edo period, kimono, geometric patterns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한국과 일본은 과거 역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인 교류로 상호공존 하며 影響을 끼치고 있다. 고대문화의 형성기의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수용했고, 그 후 한국과는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특히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사례를 살펴보면 에도[江戸, 에도]시대 기하학문양인 청해파, 칠보문, 깎자문의 경우 형태면에서 거의 같거나 유사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복식에 있어서도 많은 유사성을 보여 김미자(1993)의 우리나라 三國時代衣服과 日本衣服에 관한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한국의 의복과 古代 일본 의복과의 연관

성에 관하여 연구 되었고, 장지영(1995)의 우리나라와 日本의 服飾上에 나타난 紋樣과 刺繡의 比較研究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문양에 사용된 자수와 문양이 비교 연구 되었으며, 이행화(1999)의 日本小袖에 나타난 文樣에 관한 研究에서는 일본 전통복식의 대표인 고소데[小袖, 코소데]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와 표현방법이 연구되었고, 에도시대의 고소데에 사용된 기하학문양이 언급되어 있다.

에도시대는 서구문화에 대한 배척과 쇄국정책을 한 시기로 일본복식에 있어서는 독특한 미적양식을 표현한 대표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복식에 나타난 다양한 문양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고, 식물 문양과 동물문양 등의 사이에 기하학문양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하학문양은 색단린지풍차운환구요름문후판(色段鱗地風車雲丸九曜菱文厚板)의 복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삼각형의 비늘문이 연속적으로 地文으로

* Corresponding author: Park, Ok Lyun
Tel: 051)620-4664, Fax: 051)620-5248
E-mail: ylpark@star.ks.ac.kr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에도시대 대표적인 고소데에서 주로 기하학문양이 화려하고 독자적인 문양을 서로 연결하거나 구분해 주는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도시대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녹홍차단 청해파화두모양당직(綠紅茶段青海波火斗模樣唐織)의 문양을 살펴보면 고소데 전체에 청해파의 기하학문양이 청색과 녹색으로 구분되어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고 청해파 문양과 더불어 여러색의 꽃다발이 사실적인 문양으로 다채로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특히 에도시대 기하학문양은 색채나 문양 형태의 표현이 다채롭고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일본이 근세로 가면서 경제적인 실력을 가진 町人이 대두해 새로운 정인문화가 발달하여 문양의 표현이 더욱 다양하였으며 기하학문양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이에 기하학문양에 관심을 갖고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일본 기하학문양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고 기하학문양의 종류 및 형태를 살펴본 다음 에도시대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의 표현방법과 동물문양, 식물문양과 생활도구문양과의 조합에 대하여 연구 분석, 고찰 하였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로는 일본직물과 전통 문양에 관한 선행연구와 일본복식에 관해 번역 된 번역본과 일본에서 연구된 선행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일본미술관련 서적과 외국문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증적 연구로는 에도시대 복식에 관한 자료는 국내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기하학문양에 관한 자료는 외국문헌과 일본미술관련 서적의 사진을 중심으로 문양의 종류와 형태 표현방법 등을 과학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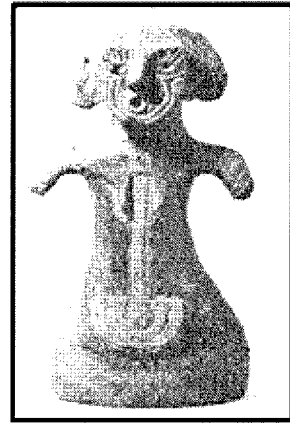
II.이론적 배경

1. 일본복식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의 기원

기하학문양은 규칙적인 선이나 면을 이용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직이나 수평 또는 사선이나 지그재그선 그리고 교차되어 격자문양을 이루기도 하고 삼각형이 되기도 한다. 기하학문양은 일정한 선의 분할이 주는 끝은 인상으로 인해 규칙적이고 딱딱하며 날카로운 느낌과 더불어 단정하고 경쾌하며 지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한다.(김영자,1998)

또 동물문양과 식물문양이 자연상태를 묘사 한데 비해 기하학문양은 자연의 현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古代 일본의 기하학문양은 죠오몬[繩紋, じょうもん]시대의 용기형 토우 <그림1>에 나타나 있다.

묶어 올린 두발에 유방을 드러내고 요포를 입고 있는 토우는 몸 중앙과 팔상부에 주술적인 사선의 줄무늬로 기하학문양이 보인다.



[그림1] 용기형 토우 繩文時代후기
神奈川縣足柄上郡井町 中屋敷 遺跡, 小宮操氏 所藏
(일본 여성복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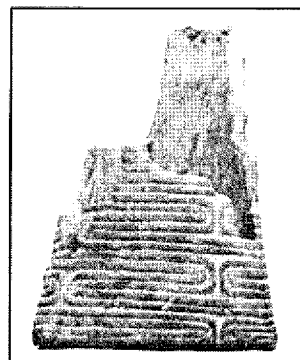
2.기하학문양의 변천

일본 기하학문양의 발달과정을 시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古代의 기하학문양

古代는 석기시대인 죠오몬시대에서 헤이안[平安, へいあん]시대 중기까지를 이르며 이 시기의 기하학문양은 수렵과 어로를 주로 한 죠오몬시대의 토기와 패총, 토우 등에서 기하학문양이 나타나 있다.

<그림2>은 양각으로 청해파 문양이 가로로 새겨져 기



[그림2] 용기형 토기 繩文時代
(日本の文様 ⑧ 水)

하학문양을 이루고 있다. 이 시기 표현된 기하학문양은 에도시대의 청해파 문양과는 형태면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古代的 청해파 문양은 유연한 곡선이 부드럽게 묘사되어 있는데 비해 에도시대는 동심원의 호(弧)를 물고기의 비늘처럼 겹겹이 배치하여 단정한 느낌이 강한 형태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에도시대 청해파 문양이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복식에 있어서의 기하학문양은 5세기 이후 고분에서 출토된 활흙으로 만든 인형 중에서 盛裝을 한 여자의 하나와[埴輪, はにわ] <그림3>의 위에는 단령에, 좌입의 엉덩이까지 오는 衣를 입고, 허리에 帶를 하고 있는데 하나와의 衣에 청해파의 기하학문양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3] 성장한 여자 하나와 5세기 동경국립박물관 伊勢崎市八寸齋土

2) 中世의 기하학문양

중세는 헤이안시대 중기에서 모모야마[桃山, ももやま] 시대인 1615년을 말한다. 헤이안시대는 궁정 문화의 꽃이 피었던 시대로 일컬어지며 대륙과의 국교가 적어져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들 고유의 예술정신 개발을 추구, 일본 독자적인 和樣化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변환은 직물디자인과 복식형태에도 나타나 독자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김세나, 2002) 또 有職의 裝束에서 산이라 부르던 것이 후에 중국 궁전의 마루 등에서 석첩문이 유래 되었으며, 줄무늬는 옷감 자체에 문양이나 색을 넣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식적 요소를 가미할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 의해 소박한 흘치기염으로 표현 되어 지고 있다.

헤이안시대부터 지방무사와 서민사이에 평상복으로 착용 되어진 히타타레[直垂, ひたたれ]를 입은 武士 <그림4>를 보면 히타타레에서 三角形의 비늘문이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양쪽가슴 부분과 히타타레의 아랫부분에 비

늘문이 규칙적으로 나타나 있어 무사의 실용적이고 정결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에도시대의 비늘문은 地文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6>에서처럼 반복적으로 조합되어 있어 地文만으로도 고소대의 품위가 느껴진다.



[그림4] 直垂를 입은 武士 헤이안시대 (조규화, 일본복식사)

<그림5>는 고웅관동도(高雄觀桐圖)는 무로마치[室町, むろまち]시대 말기 단풍놀이 모습을 그린 것의 일부로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그림에서도 세로줄의 두꺼운 줄무늬 肩衣袴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굵은 줄무늬가 단정하고 넉넉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초기의 견의고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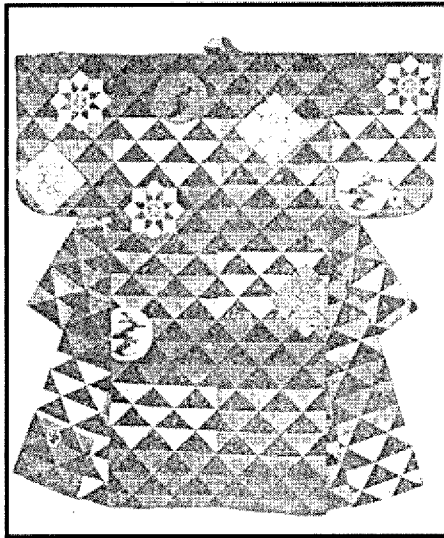


[그림5] 高雄觀桐圖 동경국립박물관

3) 근세의 기하학문양

에도시대는 1615년에서 1898년을 말하며 이 시기의 기하학적인 문양은 사실적인 형태를 추상화하여 정방형이나, 삼각형, 원 등을 조합한 문양이 표현(이행화, 1999)되었고 기하학문양의 종류도 거북이 등을 상징하는 육각형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귀갑문, 연속적인 파도문양을 반복시켜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청해파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 직물의 地文<그림6>으로 응용되어 사용되거나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이방연속식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림6>은 색단린지풍차운환구룡문후판(色段鱗地風車雲丸九曜菱文厚板)으로 에도시대 대표적인 고소데로서 삼각형의 비늘문이 복식 전체에 地文으로 사용되어 있다. 반복적으로 사용된 비늘문과 풍차의 기물문양과 구름문양의 자연문양이 딱딱하지만 단정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6] 色段鱗地風車雲丸九曜菱文厚板
江戸時代 (日本被服文化史)

III. 江戸時代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적 문양의 고찰 및 분석

덕천의 에도막부가 확립되어 복제의 방법도 차츰 정립되어서 헤이안시대 이후는 조복의 명칭인 속대를 기본으로 하는 공가복식과 무가복식이 정해졌고 복식은 공무 모두 고소데가 중심이 되었다. 에도시대 일본복식 중에서 주로 고소데에 많이 나타나는 줄무늬, 청해파, 석첩문, 비늘문, 귀갑문, 타테와쿠, 사릉형, 칠보문, 망대문, 입자롱

의 기하학문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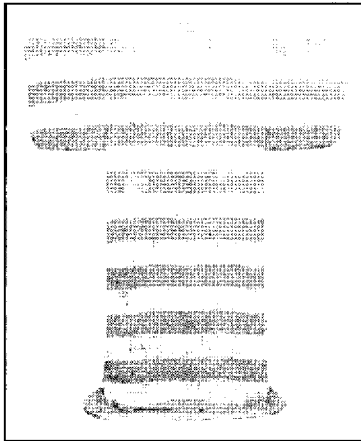
1. 기하학적 문양의 종류 및 형태

1) 줄무늬[縞紋様, しもよう]

시마[縞, しま], 시마가라[縞柄, しまから]라고 불리는 문양은 줄무늬를 말하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만스지[万筋, まんすじ]: 머리카락 만큼의 가는 줄무늬를 말한다. 만스지는 바탕 실 2올 줄무늬의 실 2올의 반복으로 짜였다.
- ② 보우지마[棒縞, ぼうじま]: 같은 굵기의 가는 줄이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막대형 줄무늬를 말한다. 다이묘지마[大名縞, だ いみょうじま]라고도 한다.
- ③ 코방지마[碁盤縞, ごばんじま]: 바둑판의 눈금처럼 세로눈금과 가로 눈금이 같은 굵기의 정사각형의 격자무늬이다.
- ④ 야타라지마[やたら縞, やたらじま]: 야타 라란 멋대로인 불규칙한 뜻으로 바닥 실이나 줄무늬의 색이나 배열이 같지 않은 불규칙한 줄무늬를 말한다.
- ⑤ 벤케이지마[弁慶縞, べんけいじま]: 가로와 세로 모두 같은 폭의 격자무늬 벤케이 지마라고 한다. 세로줄과 가로줄을 다른 색을 사용하는데 밤색과 감색을 사용한 것을 차벤케이[茶弁慶, ちゃべんけい]라고 하고 감색과 엷은 남색이나 엷은 연두색, 옥색을 아이벤케이[藍弁慶, あいべんけい]라고 한다 산뜻하고 남자다운 무늬라는 이유로 벤케이(강한 자)라는 이름이 붙여 졌다.
- ⑥ 코모치지마[子持島こもちじま]: 굵은선과 가는선이 나란히 그어져서 반복되는 줄무늬이다.
- ⑦ 타테와쿠지마[立涌縞, たてれくじま]: 세로 줄무늬의 한 형태이고 세로 줄무늬가 파도형태의 곡선의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옆선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줄무늬이다.(元井能著, 1964)

<그림7>은 경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홍백단목적작소수(紅白段木賊作土文)로 홍색과 백색의 일정한 간격의 굵은 줄무늬로 나타나 있고 백색 사이 앙상한 나뭇가지의 사실적인 자연문양과 함께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다. 굵은 줄무늬의 기하학문양은 힘이 느껴져 자연문양의 부드러움과는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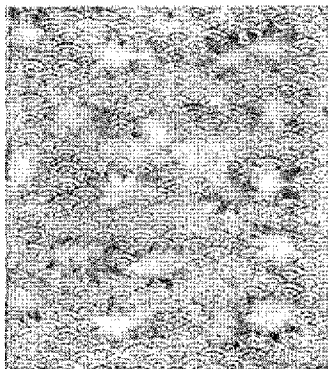


[그림7] 紅白段木賊作土文小袖
경도국립박물관

2) 청해파-세이카이하[青海波, 세이카이하]

푸른 바다의 파도를 표현한 무늬로 파도와 같이 겹쳐진 미나시고[孤兒, 미나시테]를 나열한 것이다. 청해파 문양은 동심원의 호(弧)를 물고기의 비늘처럼 규칙적으로 나란히 늘어놓은 기하학문양으로 대륙(大陸)에서 전래된 문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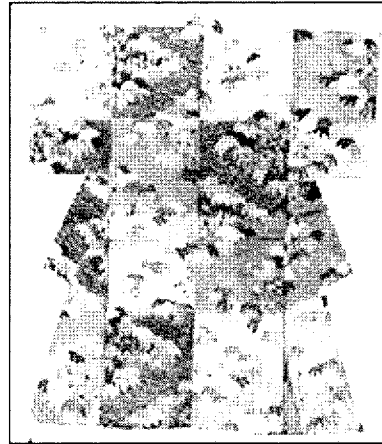
<그림8>에 나타난 청해파 문양은 흥엽청해파문능장속(紅葉青海波文能裝束)의 부분으로 에도시대 후기 작품이다. 청해파 문양이 주문역할을 하여 전체적으로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위에 홍색의 단풍나무잎이 2장씩 겹쳐져 있거나 혹은 한장씩 불규칙적으로 나열되어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림8] 能裝束 紅葉青海波文 江戸時代 후기

<그림9>는 能裝束 유청해파지문(流青海波地文)의 에도시대 작품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청해파 문양으로 죽잎의 곡선미와 어우러져 고소데 전체의 분위기에 생동감을 더

하고 있다. 기하학문양의 딱딱함 보다 한가한 여유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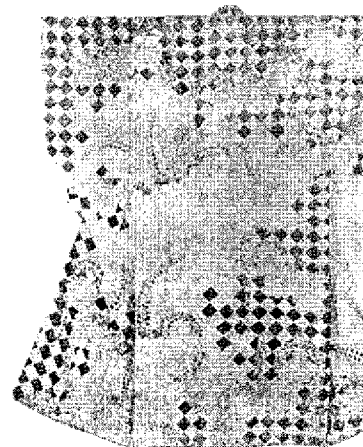


[그림9] 能裝束 流青海波地文
江戸時代 (日本の文様 ⑩ 竹)

3) 석첩문-이찌마쓰문[市松, 이찌まつ]

17세기중 가부기[歌舞伎] 배우의 사노가와이찌마스[佐野川市松]가 그 문양의 옷을 입은 무대 모습이 평판과 함께 유행한 것으로 서민에 이찌마쓰문[市松, 이찌まつ]이라는 명칭이 퍼졌다. 흑과 백의 정방형이 바둑판처럼 나열된 격자무늬이다.

<그림10>은 백축면지석첩동소수(白縮緬地石疊桐小袖)로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에도시대 작품이다. 석첩문이 어깨 부위와 고소데 아래 부분에 부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오동나무 줄기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림10] 白縮緬地石疊桐小袖
동경국립박물관

부분 부분 배열되어 있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무겁게 느껴지는 기하학문양의 석첩문을 완화 시키고 있다.

4)비늘문[鱗, うろこ]

三角紋様の 연속을 어류나 뱀의 비늘이 변화된 형으로 보고 일본에서는 어자문이라고 불려졌다. 삼각형의 밑변을 일직선으로 나란히 놓여진 경우를 거치문이라고 하는데 조그맣게 자른 치형이라는 뜻이다. 능장속에는 鱗箔이라 해서 금, 은박을 붙여서 비늘문을 나타낸 의상은 뱀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성의 지조, 집념 등을 상징하는 것이며 여배우가 착용해 심리적 효과를 얻는다. 고기의 비늘을 검정색과 흰색을 배치하여 상하 좌우로 이어놓은 문양을 말하기도 하고 원형의 비늘과 삼각형의 비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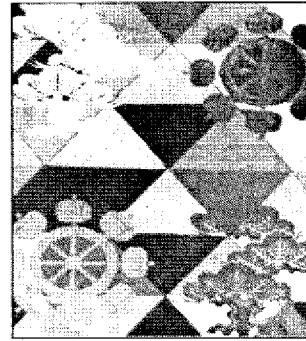
<그림11> 야요이[彌生]시대의 여왕인 히미코를 복원한 모습으로 이마에는 천관을 쓰고 상의는 고소데 위에 붉은 바탕의 줄무늬 직물로 된 한나라식 오소데[大袖]를 입고 가로줄 문양의 띠를 매었다. 焔文이 새겨진 모(裳)을 입고 마(麻)포 바탕에 단토(丹土)로 문양을 넣은 관두의 입을 후 그 위에 단토인문(丹土鱗文)멜빵을 걸치고 있다. 사선으로 표현된 삼각형의 비늘문이 여왕다운 대담한 느낌을 준다.

<그림12>은 에도시대 후기의 대린지삼계 송추차문후



[그림11] 彌生時代 히미코를 복원한 모습

판(大鱗地三階松槌車文厚板)으로 삼각형의 큰 비늘문양에 소나무 세그루가 층층이 계단을 이루고 있고 수레바퀴에 망치가 원을 이루며 꽃혀 있다. 여기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은 망치와 수레바퀴, 소나무의 사실적으로 표현된 문양의 地文으로 사용되어 식물문양, 생활도구문양과 조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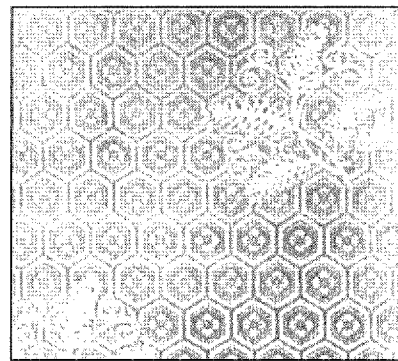
[그림12] 大鱗地三階松槌車文厚板
江戸時代 후기(日本の文様 ⑥ 器物)

이루고 있다.

5)귀갑문-킷코우몬[龜甲紋, きつこうもん]

거북이 등의 육각형을 기본 모티브로 하여 이것을 연속적으로 배치한 기하학문양이다. 육각형 속에는 꽃무늬 같은 것을 배치한 것이 많다.

<그림13>세장렬(細長裂) 二重織物花菱龜甲地文に若松文 좁고 긴 옷웃인 세장(細長)의 한 부분으로 육각형의 귀갑문이 地文으로 사용되었으며 귀갑문 안에 꽃문양이 들어 있고 그 위에 소나무 가지 문양이 있는 이중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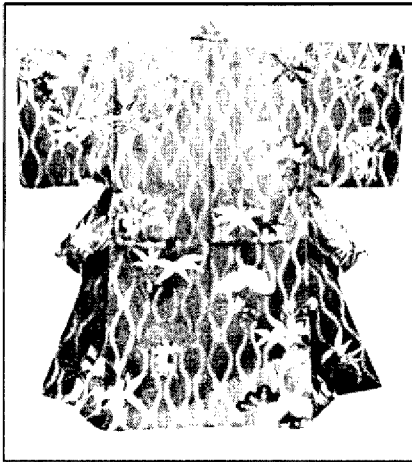
[그림13] 細長裂 花菱龜甲地文に若松文 二重織物
江戸時代 (日本の文様 ⑭ 松)

6)타테와쿠[立瀧]たてれく]

부풀어 오른 부분과 좁아진 부분의 곡선을 조화시켜서 부풀어 넓어진 부분에 여러가지 문양을 넣은 것으로 헤이안시대의 有職 문양에서도 볼 수 있다. 부풀어 넓어

진 부분의 문양에 의해 雲立通, 菊立通, 桐立通 등의 종류가 있다.

<그림14>는 能裝束의 流青海波地文 唐織 으로 에도시대 작품이다. 고소대 전체에 타테와쿠 문양이 배열되어 있으며 부풀어진 부분에는 문양이 없고 복식 전체에 부분적으로 소나무와 죽잎이 사실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물결을 연상시키는 기하학적인 타테와쿠 문양의 곡선이 우아하게 느껴진다.



[그림14] 能裝束 流青海波地文唐織
江戸時代 (日本の文様 ⑩ 竹)

<그림15>는 백지지입통당직(白地枝立通唐織)으로 타테와쿠 문양 사이의 부풀어진 부분에 국화와 가지잎이 표현되어 菊立通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마주 보는 곡선의 타테와쿠 문양과 사실적인 꽃잎의 조화가 부드러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림15] 白地枝立通唐織 江戸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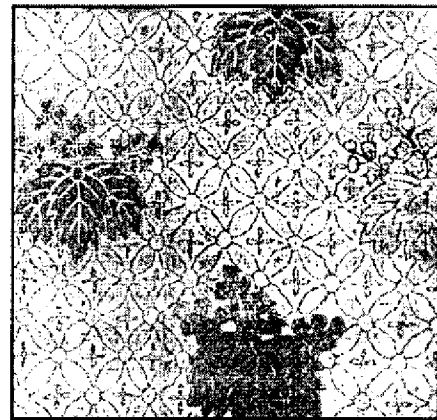
7)사롱형- 사야가타[紗綾形, さやがた]

군자형을 기본으로 한 도안 무늬로 무로 마치[室町,むろまち]시대(1338-1573)에 중국에서 들여온 金欄子 등의 직조직 무늬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후 이 무늬를 綸子에 사용하게 되어 얇은 능직의 綸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야린스[紗綾綸子, さやりんす]라고 불렸다.

8)칠보문-싯포우문[七寶文, しっぽうもん]

1개의 원에 4개의 원을 네 귀퉁이로 걸쳐 이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 지는 것을 싯포우쓰나기문[七寶繋ぎ文, しっぽうつなぎもん]이라고 한다. 원래는 중국에서 들어온 무늬로 일본에서는 헤이안조(平安朝:794~1192)시원의 장식천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에도시대에는 복식의 地文으로 사용되었다.

<그림16>은 백지칠보계동봉(白地七寶繫桐縫)으로 칠보문양이 연결되어 무늬를 이루고 있으며 칠보문 위에 국화문양이 부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리처럼 연결된 칠보문은 기하학적인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림16] 白地七寶繫桐縫 江戸時代

9)망대문-아지로문[網代紋, あじろも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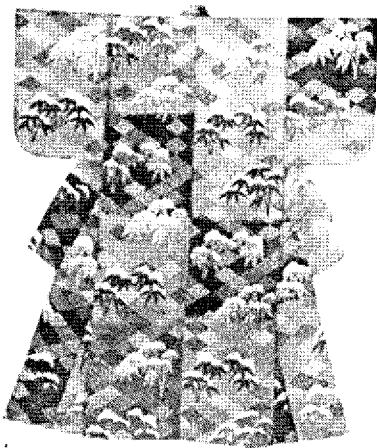
왕골의 짜임으로서, 노송나무나 대나무를 얇고 길게 한 것을 서로 다르게 조합한 상태를 문양화 한 것으로 보여져 그 이름이 붙여졌다.

10)입자롱-이레코비시[入子菱, いわこび]

큰 마름모꼴 안에 순서 있게 작아지는 마름모가 들어가 있는 무늬로 중국에서 일본에 들어와서 有職 문양으로도 쓰였는데 여러 가지로 변화 시킨 것도 있다. 에도시

대에는 고소데의 地文으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가 많아 식물문양과 동물문양, 생활도구문양을 정리해 주는 듯 단정한 느낌을 준다.

<그림17>는 에도시대의 능장속 입자릉지백지문(入字菱地雪持文)의 厚板으로 고소데의 전체에 입자릉문이 地文으로 나타나 있고 사실적인 죽문양이 부분적으로 배치되어 딱딱한 마름모의 기하학적인 입자릉 문양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표현되었다.



[그림17] 能裝束 入字菱地雪持文 厚板
江戸時代 (日本の文様 ⑩ 竹)

2.기하학문양의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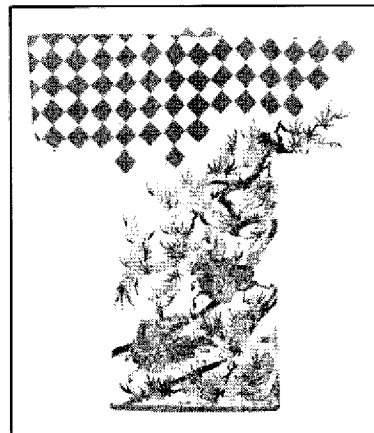
에도시대 문양의 표현방법으로는 홀치기염, 미야자키 유젠이 창시했고 고소데에 많이 응용된 유젠조메[友禪染, ゆうぜんぞめ], 자수, 가스리, 형염 등이 있으나 유젠조메와 가스리는 기하학문양의 표현에 사용된 예가 많지 않다 에도시대 기하학문양에 많이 사용된 표현방법으로는 자수와 摺箔, 縫箔 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摺箔과 縫箔의 경우 금이나 은을 사용한 문양의 표현방법으로 화려하고, 장식미를 더해 무가나 상층 정인의 고소데에 한해서 볼 수 있는 표현방법이고 홀치기염과 형염도 에도시대에 사용된 표현방법이다.

1)홀치기염[絞染, しぼり]

홀치기 기법은 奈良時代이래 계속 사용되는 표현방법으로 넓게 武家の 복식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홀치기 기법은 특별한 도구 또는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양표현으로 오랫동안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 되어져 왔다(이행화,1999)'홀치기염의 경우 자수와 달라서 세탁이 용이해 실용적이며 서민적인 요소가 짙어서 고소데의 문양 표현법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이자연,1999)

<그림18>은 백축면지석첩척경마문(白縮綿地石疊賀茂競馬文) 고소데로 에도시대 경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복식이다. 백색의 축면지에 붉은색의 석첩문의 기하학문양이 고소데의 어깨에서 소매에 걸쳐 여러겹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특히 붉은색의 석첩문은 홀치기염으로 선명하게 표현되었으며 아래로는 유젠조메로 화려하게 나무와 무성한 나뭇잎을 표현하고 말들이 서로 겨루고 있는 모습이 회화적으로 나타나 있어 기하학문양인 석첩문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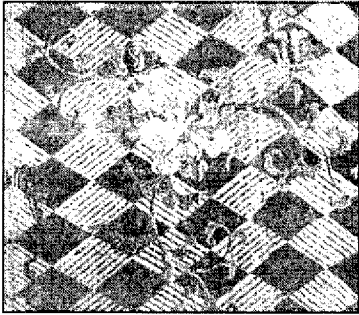


[그림18] 白縮綿 地 石疊賀茂競馬文 小袖
江戸時代 경도국립박물관

2)접박(摺箔)

生地에 版木 또는 型紙에 풀을 바르고 金箔이나 銀箔을 붙여 말린 다음 문양이 있는 곳 이외에 여분의 箔을 가지고 문양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으로 모모야마시대에서 에도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세련되어지게 되었다.

<그림19>은 홍백석량지정자당초문봉박(紅白石疊地丁字唐草文縫箔)의 부분으로 에도시대 작품이다. 홍색과 백색의 석첩문을 地文으로 백색의 석첩문에 銀摺箔을 하고 당초문양은 봉박을 하였다. 銀摺箔의 석첩문은 광택으로 인하여 화려하게 보여지고 당초문양 또한 縫箔으로 윤기와 함께 조화로우를 더 하고 있다.



[그림19] 紅白石疊地丁字唐草文縫箔
江戸時代

3) 봉박(縫箔)

자수에 금박과 은박을 풀로 접착시키는 摺箔을 병용한 표현방법으로 염직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장식미를 더해 주는 것으로 이 중에서는 生地를 완전히 金箔으로만 메운 것도 있다. 武家나 상층 町人の 고소데에서 볼 수 있는 표현방법이고 기하학문양의 표현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행화, 1999)

<그림20>은 淺黃紅白段관의 봉박으로 흐르는 듯한 물결의 청해파 문양과 부채문양을 금박과 은박을 봉박으로 표현하여 물결의 잔잔함과 부채의 화려함이 고소데를 가득 매워 대담하고 화사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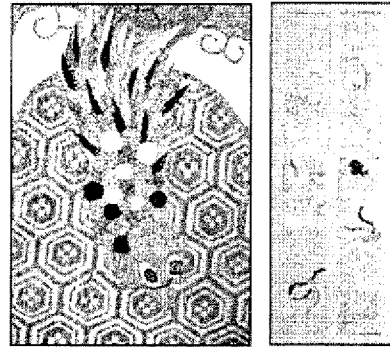
[그림20] 淺黃紅白段 小袖 江戸時代

4) 자수(刺繡)

刺繡는 바느질로서 자유롭고 다채로운 문양의 표현도 가능하므로 다른 염직 표현 방법으로는 어려운 회화적인 문양 표출법으로 널리 응용되었던 방법이다. 또한 중후한 색채와 상당히 큰 화면 표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

복문양의 표현기법으로서 오래 전부터 발달해 왔다.

<그림21>는 현대 맹총지귀갑동봉황문양자(懸帶 萌葱地龜甲桐鳳凰文様織)이다 하반신을 모두 덮는 치마 모(裳)의 허리에 붙은 懸帶에 귀갑문과 봉황, 오동나무문양이 표현되어 있고 특히 육각형의 귀갑문이 기하학적인 형태로 섬세하게 地文 역할을 하여 정갈하고 단정함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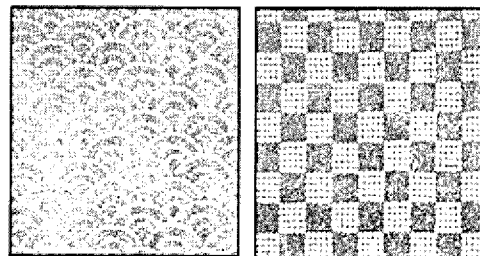


[그림21] 懸帶 萌葱地龜甲桐鳳凰文様織
江戸時代 (日本の美術8 公家の服飾)

5) 형염-카타조메[型染,かたぞめ]

일종의 코몬조메[小紋染,こもんぞめ]이다 형태는 미농지를 몇 장 겹쳐 감즙(柿澁)으로 굳힌 것으로, 이것에 특수한 정으로 구멍을 내서 문양을 뚫는다. 판자에 펼쳐진 견지(絹地) 위에 이 틀을 놓고 염료를 문질러 넣거나, 방염제인 풀을 주걱으로 바른 후 물들여 완성한다. 카타가미[型紙,かたかみ]를 사용해서 물들이는 방법은 헤이안시대 이미 볼 수 있다. 에도시대의 코몬이란 문자 그대로 작은 문양으로 기하학문양에 응용되고 있다.

<그림22>의 청해파 문양과 석첩문의 형태를 에도시대 코몬으로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작은 점무늬로 나타내어 기하학문양의 느낌이 두드러져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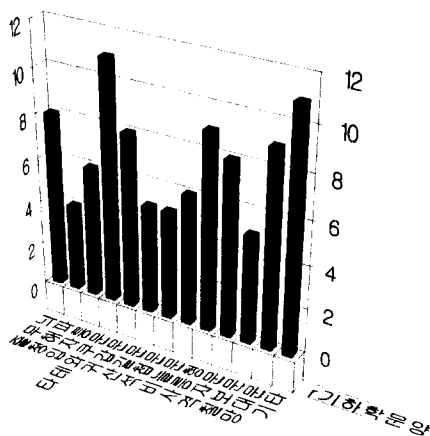


[그림22] 좌측 청해파, 우측 석첩문
(日本被服文化史)

3. 기하학문양의 조합 방법

일본의 문양에 관한 서적과 일본복식미술사 등에서 발췌한 에도시대 복식 102점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은 12종류로 나타났고 <표 1> 석첩문이 12점으로 12%, 타테와쿠 문양이 11점으로 11%를 사롱형이 9점으로 9% 순으로 나타났다. 기하학문양 12종류 모두 산길문과 칠보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기하학문양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복식도 있다.

<표 1> 기하학문양의 종류와 출현빈도



1) 단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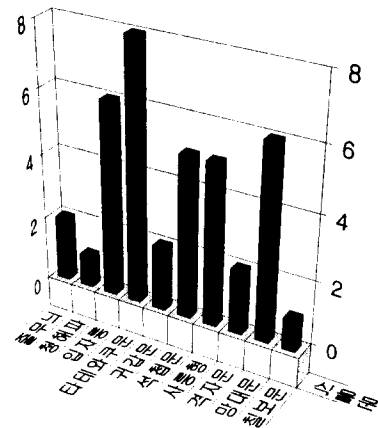
에도시대 복식에 나타난 단독문은 정인의 고소테에 나타난 줄무늬를 들 수 있는데 단독문의 형태는 복식 102점 중 5점이 줄무늬였고 격자문양도 3점이 있다.

2)복합문

① 기하학문양 + 식물문

전체복식과 식물문양과의 조합을 보면 34점으로 34%를 차지하여 기하문양과 식물문양의 조합형태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에도시대 복식에 표현되고 있는 식물문양의 종류로는 당초문, 목단문, 매화문, 대나무 등이 있고 식물문양과 조합된 기하학문양 중 타테와쿠 문양이 8점으로 식물문양과 많이 조합 되었으며 다음이 망대문으로 6점, 석첩문과 사롱형이 5점으로 나타났다. 산길문은 2가지 이상의 식물문양이 조합 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2>은 식물문양과 기하학문양과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며 식물문양이 2가지 이상 조합된 경우는 제외 시켰다.

<표 2> 식물문양과 기하학문양과의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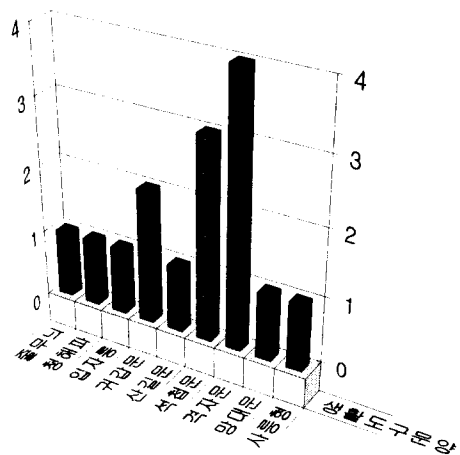
② 기하학문양+ 동물문

동물문양은 5점의 5%로 식물문양에 비해 출현 빈도수가 적었다. 에도시대 고소테에 표현 된 동물문양은 새, 곤충(蟲), 나비, 두루미, 거북 등이 있으나 기하학문양과의 조합에는 새 종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③ 기하학문양 + 생활도구

에도시대에는 생활도구를 문양화 하여 복식에 표현하였는데 생활도구의 종류로는 부채, 책, 수레바퀴, 망치 등이 표현되었고 이는 原氏語物 및 要曲 등의 책의 일부를 문양화 한 것으로 초기 문예문양 소재로부터 착안하여 연중행사나 축제에 쓰이는 도구류 등을 양식화 하였다. 생활도구문양은 일명 가재도구 문양이라고도 하며 에도시대 복식 중 고소테의 문양으로 많이 표현 되었고 기하학문양

<표 3> 생활도구문양과 기하학문양과의 조합



과 어우러져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생활도구문양 중 부채 문양의 경우 부채의 표면에 다시 꽃문양을 장식함으로서 복식의 화려함은 더 하였고 전체복식 102점 중 15점으로 식물문양 다음으로 기하학문양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상 더 많은 복식에서 여러 형태의 조합방법을 볼 수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에도시대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을 고찰한 결과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된 문양의 종류나 형태들은 비슷하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인접한 국가간의 교류에 의하여 문양의 형태와 표현방법에 있어 같거나 유사하였다. 특히 청해파 문양의 경우 한국의 조선시대의 왕족과 문, 무신의 관복 가슴과 등에 붙이는 흉배에서 일본의 청해파 문양과 형태면에서 유사한 청해파 문양이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의 기하학문양을 수용하면서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다채롭게 혹은 단순하게 변화시켜 일본의 미의식을 담고 있고, 특히 기하학문양은 에도시대 복식 중 고소데와 帶 에서 많이 보여진다.

에도시대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의 종류로는 시마라고 불리는 줄무늬와 한국의 기하학문양과 형태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청해파, 칠보문, 귀갑문, 사롱형 문양과 석첩문, 비늘문, 입자롱, 타테와쿠, 격자문, 망대문, 산길문으로 나타났다. 일본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의 출현 빈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기하학문양은 석첩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타테와쿠문양이 일본인에게 대표적으로 애호된 문양이라 보여진다.

기하학문양의 조합 방법에도 동물문양과 식물문양 등의 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단독문으로 사용된 문양은 줄무늬와 격자문양이다. 단독문의 줄무늬는 町人の 고소데에서 나타났고 소박하고 정갈한 느낌이 강하다. 이와 반대로 복합문은 기하학문양과 식물문양의 조합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하학문양과 생활도구문양의 조합이 동물문양이나 자연문양 보다 조합 비중이 높다. 복합문의 조합에 있어서 기하학문양과 식물문양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동물문양은 생동감과 힘을 느낄 수 있으며 생활도구문양과의 조합에서는 대담하고 극도의 화려함을 볼 수 있다.

기하학문양을 표현한 표현방법으로 홀치기염과 자수, 縫箔, 摺箔, 형염이 있으며 기하학문양의 경우 縫箔과 摺箔이 홀치기염과 자수에 비해 많았다. 摺箔의 경우 기하

학문양에 금박과 은박을 사용하여 자수나 홀치기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윤기와 광택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이상 에도시대의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은 식물문양과 동물문양과 함께 和様化 된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문양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도시대 일본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의 형태나 표현방법을 고찰해 봄으로서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제어 : 에도시대, 소수, 기하학문양

참고 문헌

- 김미자(1993), 우리나라 三國時代衣服과 日本衣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세나(2002), 일본전통문양을 응용한 현대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중앙대학교.
- 김영자(1998),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 이행화(1999), 日本小袖에 나타난 文樣에 관한 研究,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자연 역(1999), 일본복식사, 경춘사.
- 이자연 編譯(2004), 日本女性服飾史, 경춘사.
- 장지영(1995), 우리나라와 日本의 服飾上에 나타난 紋樣과 刺繡의 比較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규화 編譯(1993), 일본복식사, 동원슬라이드사.
- 河緒實英, 井上 章(1982), 日本服飾美術史, 家政教育社.
- 元井 能著(1964), 日本被服文化史, 光生館.
- 丸山伸彦, 日本の美術8 公家の服飾 NO.339
- 中井長了, 相川佳子字(1976), 服裝史, 相川書房
- 吉田光邦 外 3名 日本の文樣 ⑥ 器物, 光琳社, 昭和55年 (1980)
- 小尾北宮志 外 3名 日本の文樣 ⑩ 竹, 光琳社, 昭和 55年 (1980)
- 西村兵部 外 4名 日本の文樣 ⑭ 松, 光琳社, 昭和 58年 (1983)
- 原 豊宗 外 4名 日本の文樣 ⑧ 水, 光琳社, 昭和 58年 (1983)

(2004. 08. 13 접수; 2004. 10. 01 채택)